

磨製石劍存疑

金 英 夏

一、

磨製石劍에 관해서는 일찌기 有光敎一氏가 「朝鮮磨製石劍의 研究」에

서 本格的인 分析을 加하였다. 그는 磨製石劍의 型式을 차루(柄)와 穗(血溝)을 基準으로 有穗有莖式(Aa), 無穗有莖式(Ab), 有穗二段柄式(BI a), 無穗二段柄式(BI b), 無穗一段柄式(BII)이라 分類하고 Aa·Ab式의 有莖石劍이 乎壤地區에, BIa·BIb·BII式의 有柄石劍은 慶州地區에 主로 分布하고 磨製石劍의 祖形은 韓國式銅劍(所謂 細形銅劍)에 있다고 하였다. 또 그는 磨製石劍 社會의 性格에 對하여 「石劍을 만드려고 流行시킨 것은 最初의 金屬文化에 뒤이어 漢의 植民地의 中心이 된 西鮮地區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 外郭에 살고 있던 南鮮地區의 사람들이었다. 樂浪郡時代에 그 漢文化의 直接 支配下에 屬하지 않았던 그들이야말로 將來 朝鮮史의 主體가 되는 韓族이었다. 石劍은 그들 사이에 流行한 特色 있는 遺物이므로 그 研究는 韓文化의 生長에 甚은 關係를 가진다①」라고 하여 磨製石劍과 그것을 隨葬한 支石墓를 土着人의 文化라 보고 銅劍은 漢人의 文化 내지 그 亞流文化로 보았다. 이러한 有光氏의 見解는 學界에 通說처럼 되어 온 中, 韓國의 先史考古學에 큰 影響을 끼쳐

어왔다②.

그러다가 國立博物館의 「韓國支石墓研究」과 나와 放射性炭素에 依한 年代測定을 근거로 京畿道 坡州郡 玉石里의 住居址 마다에 있던 有穗二段柄式石劍의 絶對年代가 韓國式銅劍보다 三·四世紀나 오래되었다고 斷定하고 韓國式銅劍祖形說을 否定하였다.

이에 對하여 有光氏는 「朝鮮磨製石劍의 年代論에 對하여」를 發表하여 銅劍祖形說을 再強調하고 한편 韓國式銅劍의 年代에 關한 從來의 學說을 考慮할 餘地가 있다고 主張하였다. 卽 韓半島 全般에 公한 青銅器文化의 認識을 세움게 하므로써 韓國式銅劍의 年代를 溯上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試案을 提示하였다. 그리고 有光氏는 「考古學者가 四〇餘年에 걸쳐 認定해온 形式論의 研究가 一回의 〇年 年代測定의 結果로써 價値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면 考古學 研究者에게는 重大한 問題이다. 지금까지의 考古學者의 研究過程의 어디에 誤謬가 있었는지 考古學의 立場에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③」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有光氏의 形式論의 研究에 依한 自信있는 主張에도 不拘하고 筆者로서는 全的으로 首肯키 어려운 點이 없지 않아 여기에 그 疑問을 提記하려고 것이다.

一、

有光氏가 磨製石劍의 祖形을 韓國式銅劍에서 求한 主된 근거는 石劍의 劍身에 二條의 穗(血溝)을 雕出하므로써 이룩된 斷面이 韓國式銅劍의 그것과 酷似 하다는 데 있다. 그러면 그의 말대로 漢文化의 外郭에서 金屬器를 돌로 模製하면서 支石墓를 構築한 土着人들이라면 支石墓안에 銅劍을 直模했다는 有穗式石劍을 副葬할 可能性은 없었을까.

支石墓에서 有穗式石劍이 出土된 例는 없다. 「朝鮮磨製石劍의 研究」에 실린 表④를 통해 살펴보면 江原道 泉田里의 BII(?) 江原道 餘糧里의 BIb, 全北 九億里의 BII, 慶北 箕聖洞의 BII, 慶北 祐山洞의 BIb, 大邱 大鳳洞의 BIb 및 BII, 慶南 外洞里의 BII와 같은 支石墓 出土의 磨製石劍은 모두 無穗式이다. 다만 黃海道 雲山里의 것이 Aa(?)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元報告者 鳥居龍藏이 支石墓傍에서 採集한 것⑤이라 고 하였은즉 支石墓內에서 出土한 것이라는 確證이 없는 흠이 있다. 또 三上次男의 「滿鮮原始墳墓의 研究」에 실린 支石墓 集成表⑥를 보아

遺跡地名	石劍分類 (有光)	比較
玉石里	B I a	支石墓下 住居址
三巨里	Ab	
黃石里	2號	B I b
	6號	B II
	7號	B II
	13號	Ab(?)
上甲里	Ab	表土採集
拱北里	B II	〃

〈表 I〉 韓國支石墓研究의 磨製石劍出土例

도 有槌式石劍의 확실한 出土例는 없다. 뿐만 아니라 學術的發掘의 成果인 「韓國支石墓研究」에 실린 資料를 살펴 보아도 (表 I)에서와 같이 玉石里의 有槌二段柄式石劍이 支石墓下의 住居址에서 나온 것을 除外하면 有槌式石劍은 全혀 出土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支石墓에서 아직껏 有槌式石劍이 出土한 例는 없으므로 支石墓와 有槌式石劍과는 關聯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既往의 報告書나 論文 가운데 支石墓에서 銅劍이 出土된 것으로 言及된 까닭이 무엇일까? 그러한 遺跡을 分析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雲岱里⑦…全羅南道 高興郡 豆原面 雲岱里의 石棺(?)에서 出土된 銅劍을 有光氏가 「元來 巨大한 蓋石과 支石이 있었다고 推定해야 할 理由 있다」는 小泉氏의 復命書 附記를 土台로 大邱大鳳洞 支石墓群의 發掘結果에 對應시켜 이 遺跡을 支石墓일 것이라고 推斷했음을 따름이다. 그런데 大鳳洞의 墓標의 支石墓는 그 뒤 支石墓 發掘에서는 全혀 알려지지 例가 없다⑧.

雲岱里出土의 銅劍은 莖部에 흠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銅劍은 우리나라

라 漢江以南에서만 五·六例가 알려져 있고 그 起源은 典型的인 遼寧式 銅劍과의 共同祖形에서 分派 生成한 것이다⑨. 그리고 扶餘 松菊里에서 의 正式發掘을 통한 報告書⑩를 보면 石棺墓 안에서 磨製石劍등과 함께 莖部에 흠이 있는 松菊里式銅劍이 出土되었다. 또 南山根의 石棺墓에서 ⑪ B·C·九八世紀頃의 周代 青銅器와 遼寧式銅劍이 伴出하여 遼寧地區와 韓半島의 石棺墓나 青銅器 研究에 많은 示唆을 주고 있다. 이러한 點들을 감안할 때 雲岱里의 遺跡은 支石墓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② 上紫浦里…京畿道 楊平郡 上紫浦里에서는 支石墓의 石室의 積石層에서 銅劍이 發見되었다고 元報告者가⑫ 보고하였는데 他處⑬에서는 이를 支石墓와 연결시켜 보고 있다.

上紫浦里出土 銅劍은 筆者의 襄陽式銅劍系列⑭에 屬하는 것으로서 등대(脊)가 鋒末까지 彎은 것이 특징이다. 이 特徵은 慶北大藏式銅劍에서 처음 나타나며 襄陽의 土城內、和順 大谷里의 未完成 銅劍과、草茭里·傳靈岩 등의 鎔范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이 襄陽式銅劍의 系譜에서 는 韓國式銅劍 形成過程의 一面을 엿볼 수 있으며 이들의 下限은 B·C 四三世紀頃이 될 것이라는 點을 注目할 만 하다.

③ 節山里…全南 和順郡 南面 節山里의 支石墓에서 韓國式銅劍이 出土했다고 報告되고⑮ 있으나 관계 유구가 記錄되어 있지 않은 點으로 보아 再考의 餘地가 있다. 銅劍은 鋒部가 부러졌으나 扶入部 線上的 節帶가 남아 있어 蓮花里式銅劍⑯임을 쉽게 알 수 있다.

④ 四老里…京畿道 楊州郡 九里面 四老里의 支石墓에서 銅劍이 出土된 것으로 樞本杜人이 解釋한⑯ 以來 이에 따르는 것 같다. 그러나 筆者는 비록 元報告書⑰를 보지 못해 確實한 根據를 가지지는 못하나 西谷正氏⑱이 割石으로 쌓은 長方形 石棺이라고 보는 見解를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四老里의 遺跡에서는 銅劍이 出土되었다. 지금까지 銅劍이 出土된 곳은 ⑲ 金海 會峴里의 甕棺、이즈웨스트프의 石墓和順 大谷里의 石棺墓와 益山 梨堤里·宋山里·反川里 傳靈岩(鎔范) 등의 遺構가 不分明한 遺跡등인데 銅劍의 下限은 漢四郡 設置以前으로 보아

아 할 것이다.

⑤ 其他·金海 茂溪里의 支石墓에서 銅鏃이 出土했다는 報告²²가 있으나 이에 對해서는 見解를 달리하는 이²³도 있으며 또 黃海道 鳳山郡 御水面 解放洞의 支石墓에서 銅劍이 出土되었다고 하나 內部가 攪亂되고 時代가 내려오는 土器片들이 함께 들어 있었으므로 後代에 混入된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²⁴.

以上 列學한 外에 蓮花里 遺構조차도 南方式 支石墓의 下部構造의 石室로 보는 見解²⁵가 있는 것을 보면 最初로 支石墓에서 銅劍이 나왔다는 雲岱里의 誤判에 비롯한 韓國式銅劍이 支石墓에서 出土한다는 謬見이 學界 一角에 蔓들고 있는 것 같다.

上述한 바와 같이 支石墓에서 韓國式銅劍이 出土한 確實한 例는 없는 것 같으며 銅劍이 支石墓에서 出土되었다고 問題視되는 遺跡은 그 銅劍이 모두 古式에 屬하는 것이라는 點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三、

支石墓에서 나오지 않는 有槿式石劍과 韓國式銅劍이 石棺墓에서는 出土한다. 有槿式石劍을 出土한 石棺墓의 例로는 平北 北倉邑 大坪里四號(Aa), 同七號(Aa), 黃海道 鳳山郡 御水區(B1a), 黃海道 銀波郡 德岩里一號(Aa), 慶南 蔚州郡 東部里(B1a, 變形) 등이 있다. 그러나 그 數는 無槿式石劍을 出土하는 石棺墓의 數에 比하여 아주 微微하다.

韓國式銅劍은 松菊里, 雲岱里의 石棺墓에서 出土한 松菊里式銅劍을 이어서 忠南 扶餘郡 蓮花里, 大田市 槐亭洞, 平北 新市洞, 京畿 楊州郡 四老里, 慶北 盈德郡 沙川里, 黃海道 瑞興邑 泉谷里, 忠南 牙山郡 屯浦里, 全南 和順郡 大谷里, 全南 潭陽邑, 慶州 坪里, 黃海道 鳳山郡 宋山里 등 石棺墓 系列의 遺跡에서 연달아 出土例가 늘어나고 있다. 特別히 들 銅劍은 모두가 古式이라는 點에 注目해야 할 것이다.

從來의 通說로는 北方式 支石墓와 石棺墓가 結合하여 南方式 石墓로 生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石棺墓에서 나오는 有槿式石劍이 結合形이라는 南方式 支石墓에서도 出土되는 경우가 있을지 한데 그러나 實際로는 南方式 支石墓에서는 有槿式石劍은 나오지 않고 있다²⁷. 石棺墓에서 韓國式銅劍이 나오고 또 無槿式·有槿式의 石劍이 各기 나오지 않는 韓國式銅劍과 磨製石劍이 伴出하는 例는 없다. 松菊里에서 唯一하게 銅劍과 石劍이 伴出하였으나 그 銅劍은 韓國式銅劍 아닌 松菊里式銅劍이며 그 石劍은 B11式의 磨製石劍이다.

四、

위에서 磨製石劍에 관한 몇가지 事實을 抽出해 보았다. 即 支石墓에서 有槿式石劍이 出土한 確實한 例가 없다. 또 支石墓에서는 韓國式銅劍이 出土하지 않는다. 石棺墓에서는 有槿式·無槿式의 石劍 또는 韓國式銅劍이 各기 出土한다. 그러나 韓國式銅劍과 磨製石劍이 伴出한 例는 없다. 唯一하게 銅劍과 石劍이 伴出한 例가 있는데 그 것은 松菊里式銅劍과 B11式 磨製石劍의 共存例이다. 이러한 事實들에 依하면 비록 韓國 靑銅器文化의 年代를 溯上시킨다 하더라도 磨製石劍의 祖形이 韓國式銅劍(細形銅劍)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韓國 磨製石劍 가운데 數의 으로 가장 優勢한 B11石劍의 祖形을 松菊里式銅劍과 같이 보다 더 오래된 것에서 求하는 것이 쉽지 않을 까. 그리고 Aa1 B1a와 같이 有槿式石劍의 斷面이 韓國式銅劍의 그것과 酷似한 만큼 形式論的研究의 成果를 部分的으로 받아들여 有槿式石劍과 韓國式銅劍의 關聯만을 認定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資料의 增加를 기다려 새로운 視點에서의 究明이 期待된다²⁸.

附記 本稿는 金昌鎬君이 提出한 學期末리프트를 修正 加筆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둔다.

②磨製石劍의 祖型問題에 對해서는 그 祖型을 多源으로 보고 韓國式銅劍、銅戈、銅鉞、漢式劍 등에서 그 祖型을 求하는 故金良善氏說(金良善·再考를 要하는 磨製石劍의 形式分類와 祖型考定問題, 古文化第一輯, 一九六二, 五)磨製石劍중에서는 도저히 銅劍의 初形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金某의 說(金貞培·韓國青銅器文化의 史的 考察, 韓國史論文選集, 先史篇, 一三三에서 再引用) 韓國式銅劍은 磨製石劍의 二次的인 祖型이고 그 最初의 祖形은 오르도스式 一篇銅劍 또는 그것을 模倣한 遼寧式骨劍 刀위에서 찾아야 된다는 金元龍氏說(金元龍·韓國磨製石劍起源에 關한 一考察, 白山學報一〇, 一九七一, 六)。

石劍의 柄部와 中國式銅劍柄과의 類似點에 의해서 그 祖型을 桃氏劍 등 中國式銅劍에서 求한 全榮來氏의 說(全榮來·完州上林里出土 中國式銅劍에 關하여 全北遺蹟調査報告 第六輯, 一九七六, 一一)·有莖式과 有柄式으로 나누어 各各 有莖式、有柄式의 中國式銅劍에서 그 祖型을 찾는 甲元眞之氏說(甲元眞之·東北アジア磨製石劍、古代文化二五卷四號、通卷一七二號) 등이 있으나 出土例中心의 言及은 별로 없었고, 또 支石墓、石棺墓 등에서 磨製石劍과 伴出하는 磨製石鏃은 그 數나 形式의 多樣함에 있어서 石劍을 훨씬 先 능가하고 있는데 비해 韓國式銅劍과 銅鏃의 伴出例가 없으며, 銅鏃의 出土例도 그리 많지 못하고, 또 槐亭洞、小鹿島、泉谷里의 石棺墓系統에서 古式銅劍과 함께 나온 扁六角形無莖石鏃은 磨製石劍과 伴出한 例가 없다. 最近에 나온 支石墓를 新石器時代末로 보는 說(金元龍外·青銅器시대와 그 文化、三星文化文庫八九, 四一)의 尹武炳氏說、支石墓의 始源問題에 대한 새로운 說(甲元眞之·朝鮮支石墓의 編年, 朝鮮學報六十六輯, 一九七三 pp. 二一三)에서의 有光教一氏도 비슷한 說을 발표했다고 하나 元資料를 보지 못했으나, 靑銅冶金이 發達하기 以前에 石鏃 또는 石槍에서 自然스럽게 磨製石劍으로 發展되었다는 說(金廷鶴·韓國의 考古學, pp. 八五—八六) 등은 興味롭게 생각한다. 從來 韓國式銅劍出土遺跡을 以北의 台城里發掘로 土壙墓에서 集中的으로 出土되는 것으로 보고 入室里、九政里、漁隱洞等도 土壙墓로 斷定하고 있으나 韓國式銅劍 가운데 古式은 石棺墓系統에서 出土되고 있어서 再考되어야 될 것 같으며, 石棺墓의 性格究明이 磨製石劍祖型解決에 실마리가 될 것이다.

※ 추가·本考作成後 印刷訂正에서 南城里(韓炳三 등)·南城里石棺墓、國立博物館古跡調査報告第十冊, 一九七七, 十二)와 金海 內洞(金廷鶴·金海內洞支石墓群予報, 考古學, ジャーナナル, 一三八號)에서 韓國式銅劍이 나왔음을 확인

하게 되었다. 南城里에 對해서는 「韓國式銅劍 分類再論」(韓國史研究十九號 附錄)에서 小見을 밝혔다. 支石墓에 對해서는 所謂 北方式支石墓十石棺墓 Ⅱ南 方式支石墓說과 副葬品을 中心으로 다루 發表의 機會찾고자 한다.

(慶北大學校博物館長)